

# 해남 '자원순환 플랫폼' 연말 개관

정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선정  
군, 공영주차장 부지 100억 투입  
재활용품 교환센터·에코라운지 등  
면적 1114.48㎡ 지상 3층 규모



해남군 에코플랫폼 조감도.

해남군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이 될 에코플랫폼을 건립한다. 에코플랫폼은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하는 등 자원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난 2020년 정부 그린뉴딜 과제인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남읍의 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1114.4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AR·VR 자원순환 입체 체험교육장, 에코 라운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가설 울타리와 가설 건축

물 축조와 함께 기존 건물인 구 공영주차장을 철거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BF 예비인중, 전남도 계약심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원순환에 참여해 적립된

포인트는 에코플랫폼 내 리필샵, 물품공유센터, 입체체험장, 에코 라운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자원순환의 표준 모델이 될 에코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추진에도 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서남해 해양동식물 조사선 뜬다

호남권생물자원관 46억 투입  
59t '섬누림호' 4월말 취항  
미발굴 지역 생물자원 연구



섬누림호 조감도

해양 동식물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 장비 등이 탑재된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가 오는 4월말 취항한다.

호남권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환경부 최초로 도입하는 친환경 선박인 도서생물조사선은 길이 30.3m, 폭 5.4m, 높이 2.6m, 59t 규모로 46억원이 투입됐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지역 생물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전지와 교육을 통해 알리는 우리나라 최초·유일의 전문 기관이다.

승선 인원은 20명으로 디젤과 전기 복합 추진 방식의 친환경 차세대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선박 안에는 해양 동식물을 조사할 수 있는 다 이빙 설비와 바닷물 안 미생물 조사를 위한 연구

조사 장비 등을 갖췄다.

자원관은 조사선을 활용해 그동안 탐사하지 못했던 미발굴 지역 생물자원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호남권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조사선은 환경부 산하기관 최초이자 호남, 제주지역 1호 친환경 선박으로 유류 절감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도 25%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2배 확대

1인 28만원·4인 68만원...재신청 없이 4월까지 사용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는 27만7800원, 2인 가구는 37만9000원, 3인 가구는 51만9000원, 4인 이상 가구는 67만71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가구원 특성 기준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

나에 해당돼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재신청 없이 8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에 배정된 필리핀 산미테오 계절근로자들이 인권보호·범죄예방 교육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396명 배정

1차로 필리핀 근로자 17명 입국...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해남군이 해마다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3일 필리핀 산미테오 계절근로자 17명이 1차로 입국해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고, 인권보호·범죄예방 교육 후 농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10일에는 필리핀 지엠에이 계절근로자 24명이

2차로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및 숙소점검 등을 통해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로부터 396명(농업 266, 수산 130)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입국한 근로자 15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바쁜 영농철에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령화된 농어촌 마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년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고, 내년도도 고용주 재입국 추천을 통해 우리 군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목포 자원회수시설 시민이 평가

시, 현장평가단 모집...16·17일 소각시설 견학

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의 소각처리방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모집한다.

현장평가단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소각시설 현장을 견학하고 소각방식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의원 2명, 언론인 2명, 환경단체 2명, 주변마을 4명, 시민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시위원과 언론인, 환경단체, 주변마을은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추천받고, 시민의 경우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연속해서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며, 공개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현장평가단은 자원회수(소각)시설 4개

소(스토커 2개소, 열분해 2개소)를 방문하며, 현장 견학을 통해 각 시설의 장단점을 평가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의 안정성, 시민 건강권 등에 대한 현장감 있는 소통을 위해 현장평가단을 모집하게 됐다"면서 "최적의 소각시설 모색을 위해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랜선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원회수(소각)시설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진도 오류·길은마을 LPG 배관망 구축

군, 3년 연속 구축사업 선정  
총 10개 마을 967가구 혜택



진도군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고군면 오류·지산면 길은마을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125가구가 거주하는 고군면 오류마을과 지산면 길은마을은 국·도비 3억 등 총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가스 수준의 LPG 공급망을 개설한다. 사업은 오는 6월 착공해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지난 2021년 진도읍 송현마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LPG공급망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올해까지 총 10개 마을 967가구에 국·도비 42억 등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LPG 배관망을 통한 가스 공급률이 전체 24%(진도읍 58.7%)까지 확대되며, 군은 마을 단위를 넘어 면 단위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가스를 주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기존 LP가스통과 등유 보일러에 비해 30~40% 가량의 연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강종만 영광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 대화

10개 읍면 202건 의견 청취

강종만 영광군수가 10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완료했다.

영광군은 지난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영광군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과 만났다.

영광군의 주요 사업 성과와 8기 영광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군민들로부터 202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건의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통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긴급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민 편의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서 지역인 낙월면민과의 대화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광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군민과의 공감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ilee@kwangju.co.kr

# 영광, 군 단위 첫 '친환경 전기버스' 운행



지난 7일 강종만 군수와 강필구 군의회 의장, 최주태 영광교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개통식이 열렸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최근 군 단위 최초로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개통식을 갖고 본격운행에 들어갔다.

영광군은 33대의 군내버스가 경유로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해 2월 전기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 사업비 7억원(전기저상버스 2대)을 투입해 기반 설비를 구축했다.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월등히

적어 출입구 높이가 낮고 경사편이 설치돼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이 편리해지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대체차시 전기저상버스로 교체, 향후 전체 군내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ilee@kwangju.co.kr